



濁流清論

제31호 2014년 5월 2일(금)

발행인 : 김호섭 / 편집 : 편집위원회

<알려드립니다>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접수하실 원고를 교수회 이메일 (juok@ajou.ac.kr)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위의 메일로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휴머니즘의 봄은 오는가	1
특집: 봄날을 건지는 나뭇가지	3
특집: 식물, 꽃 그리고 나무	4
특집 : 봄의단상	8
소통과 담론 : 5월의 단상-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종말	9
교수들의 건강칼럼 : 전립선 비대증	10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휴머니즘의 봄은 오는가

불어불문학과 강충권

봄이 오다가 멈춰버린 듯한, 가슴이 한없이 멍멍하고 추워지는 2014년 한국의 봄이다.

필자는 예전의 짧은 몇몇 글에서 한국에서의 물질주의의 팽배가 심히 우려된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사고, 그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처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을 기가 막히고 가엾기 짝이 없는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월호의 참극은 이 물질주의의 팽배가 빚어낸 결과로서 오늘날의 한국의 자화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물질주의’를 “물질적 이익을 가장 상위의 가치로 여기는 심정적 성향”이라고 정의하겠다. 이러한 물질주의는 여러 가치를 파생시킨다. 우리 사회에서 커져 가기만 하는 이기주의, 배금주의, 인명 경시, 인격 경시, 원칙과 규정의 무시, 졸속, 책임 회피, 위법, 탈법, 불법, 편법 등이 그런 것에 속한다. 물질주의와 대처점에 있는 것으로서 ‘휴머니즘’을 필자는 르네상스 등을 거론하며 복잡하게 정의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심정적 태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휴머니즘의 실종은 정치, 행정,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느덧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사회에도 투입하여 대학구성원들을 위협하고 있다. 대외적 환경을 보면 대학들은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용합직한 무슨무슨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대규모 대학들이 유리하게 마련인 숫자와 규모의 경쟁으로 간단없이 내몰리고 있다. 사람이 존중되는 가운데 진지하면서도 명량한 대학 분위기, 진정한 학풍, 큰 학자들이 생기기 힘들어지는 환경이다. 다른 한편, 대내적 현실을 잠깐 보자. 상호 인격 경시의 사소한 예를 들어보자면 새로운 얼굴을 익히고 인사하던 각종 학회의 행사에서 끼리끼리만 인사하고 어울리는 회원들이 늘고 있는 사실, 우리 대학 내에서도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인사를 외면하는 구성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등이다. 휴머니즘을 이루고 있는 ‘민주’와 ‘평등’은 무례함이나 타인의 무시를 뜻하지 않는다. 타인의 무시는 곧 부메랑처럼 본인에게 되돌아올 뿐이다. 휴머니즘의 실종은 곧 공동체 사회, 공동체 문화의 실종으로 이어진다. 자기에게 유용한 정도를 따져서 대인 관계와 예절을 조정하는 이해 타산적 사슬 관계만 만들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의 무사함과 이익이나 챙기는 이기주의와 기회주의 그리고 보신주의가 횡행할 것이다. 또한 만약 대학의 경영자 혹은 관리자(보직자 포함)이 휴머니즘을 상실하고 외형적인 성과주의에 함몰되어 있다면 그 대학 구성원들을 인격체로 생각하고 대우하지 않으며 그들을 가시적 성과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나 소모품으로밖에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의 교육으로 눈을 돌려보자. 20세기 이후로 대학은 더 이상 상아탑으로 통하지 않는다. 시대적 요청으로 대학의 대사회적 기능이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된 것이다. 사회에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사회와 기업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대학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면 19세기 야만적 자본주의의 유럽 사회를 연상시키는 이 물질주의의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도구적 기술만 가르치면 우리 교육자의 임무는 끝나는 것인가? 이 치열한 경쟁의 물질주의 사회에서 타인을 수없이 탈락시키면서 그 희생 위에 입신양명하여 득의양양해할 인재를 키우면 우리 교육자의 임무는 완수되는 것인가? 여기에 생각이 미치면 우리는 대학이 아직도 지켜야 할 본령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지성의 전당으로서의 대학의 사명이다. 단지 지식상의 수월성 혹은 기술상의 수월성을 뽐내며 제2의 세월호 사고를 만들든 말든 자기 이익만을 좇는 물질주의자를 길러낸다면 그것은 대학이 아니다. 지식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지식과 기술이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부의 창출인지 성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성인을 길러내는 곳이 대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전공학문에서의 수월성만 지닐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정 능력을 갖도록 참여하고 기여하는 책임감 있고 윤리 의식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 구성원 모두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질주의에 오염된 구석은 없는지 우리 모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서로 건설적인 비판과 토론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하여 모두가 다 같이 공동선을 지향할 때, 그 때서야 타인을 사물이나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휴머니즘의 봄, 진정한 봄이 올 것이다. 지금 이 썩어빠진 가슴의 딱딱함과 분노로부터 치유되어 예전처럼 강의할 수 있는 봄이 오길 기대해본다.



봄날을 견디는 나뭇가지

국어국문학과 문혜원

어떤 나무의 말

**나희덕*

제 마른 가지 끝은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졌습니다,

더는 쪼개질 수 없도록,

제게 입김을 불어넣지 마십시오.

당신 옷깃만 스쳐도

저는 피어날까 두렵습니다.

곧 무거워진 잎사귀일랑 주지 마십시오.

나무끼는 황홀 대신

스스로의 棺이 되도록 허락해주십시오.

부디 저를 다시 꽃 피우지는 마십시오.

봄에서 만물이 생동하는 기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뜻해진 공기와 연록색 잎을 밀어 올리는 나무들, 노랑과 분홍, 빨강으로 순차적으로 색깔을 바꾸는 꽃들, 얼어붙은 땅 가죽을 뚫고

살아나오는 작은 생명들. 모두가 봄의 것이다.

그것뿐일까. 나날이 화려해지는 풍경만큼 날로 어두워지는 마음의 이율배반. 흑한을 견뎌낸 나이 든 이들이 목숨 줄을 놓아버리는 때 또한 봄이다. 그래서 꽃샘추위가 오는 시절에는 유독 장의차가 긴 행렬을 이룬다.

따뜻한 날에 따뜻하고 추운 날에 추운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상식에 기대어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보았던가. 시에 나타나는 역설이란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겠다. 어떤 시인은 ‘찬란한 슬픔의 봄’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고 했고, 어떤 시인은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이육사, 교목)고 했다. 살아나는 것들의 배후에 은밀히 깔리는 죽음의 냄새들. 가장 푸른 계절인 4월과 5월에는 곳곳에 검은 리본이 걸린다. 봄날의 황홀에 취해, 가버린 이들의 죽음을 잊지는 말자고. ‘당신 옷깃만 스쳐도 피어날까’ 두려운, 이제 곧 생명의 잎사귀를 무겁게 매달게 될, 봄이다. 스스로를 棺에 가두고 살아있음의 이유를 곰곰이 되새겨야 할 날들이다.


 특집

식물, 꽃 그리고 나무

생명과학과 최홍근

“탁류청론”에서 꽃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하였을 때, 반사적으로 승낙은 하였지만 막상 쓰려고 하니 내가 꽃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식물 이름과 형태에 대하여나 좀 알까 우리가 알고 있는 ‘꽃’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진도 해안에서 참사가 일어났고 ‘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조차 죄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다.

사람들이 나를 식물학자라고 한다. 나는 스스로는 생물학자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나는 김블의 Biology를 보고 생물학을 하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내가 식물학과를 다닌 것에 더 비중을 두는가 보다. 어쨌거나 삼박사일로 일 년에 두 번씩 야외실습을 다니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물을 좋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식물학과를 다니다보니 어찌어찌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식물을 채집해서 표본을 만들고 동정하고 분류하는 일이 나의 전공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식물’이 있다. ‘식물’ 국회나 ‘식물’ 장관 등이라고 하였을 때 앞에 붙어 있는 ‘식물’이라는 수식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기서 ‘식물’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거나 잘 못하면서 쓸모없이 밥만

축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진짜 식물들이 하는 일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식물은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식물도 없다. 식물은 자기 자신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분을 생성하고 저장하여 놓는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식물이 생산한 양분을 이용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물 없이는 동물도 없다. 따라서 ‘식물’ 인간이라는 말과 같이 잘 못 사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식물인간’을 영어로 하였을 때의 표현은 ‘a vegetable (human)’이다. 원래는 19세기에 어느 의사가 뇌손상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학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식물을 좋아한다고 하였을 때에는 영어로는 ‘plant’라는 의미와 ‘vegetable’ (또는 ‘vegetative’)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Vegetable’은 식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 즉, 야채나 채소의 의미가 더 짙은 것 같다. ‘Plant’는 동물과 함께 지구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존재이다. 다만, 이를 구분 없이 쓰다 보니 영어에도 없는 ‘a plant human’이 출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는 또 식물을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꽃도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식물학 시간에 ‘식물의 생식기관이 어떻게’ 하면서 꽃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무척이나 어색해하였던 기억이 난다. 그렇다. 맞다. 꽃은 식물의 생식기관인 것이다. 식물은 생존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2500미터 정도의 고산 지대에 가보면 계절 구분이 확실하지가 않다. 일 년의 반은 겨울이고, 봄과 여름이 같이 오고 같이 지나간다. 가을도 없이 바로 겨울이 닥친다. 해서 고산에 사는 식물들은 봄꽃, 여름꽃, 가을꽃 구분 없이 오케스트라에서 합창하듯이 한꺼번에 꽃이 피는 데 대단한 장관이다. 보기에 아주 좋고, 아름다움 그 이상이다. 이런 장면을 접하게 되면 식물학을 하게 된 것을 스스로 매우 대견하게까지 느끼게 된다.

인생 사십이 넘으면 누구나 철학자가 되듯이 우리 아주대학교의 교수님들 중에서도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시다가 식물의 아름다움에 취하신 분도 있는 것 같다. 그림을 그리시다가 장미꽃 그리기에 푹 빠져있는 분도 계시다. 연구실에서 난분을 열심히 보살피 주고 있는 분도 계시다. 그리고 교정에 있는 나무에 관심을 가지신 분도 있다. 이러한 분들이 내가 무슨 꽃이나 식물의 도사인 양 궁금한 것을 물어 오실 때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한 가지 사건을 여기에서 공개하려고 한다. 그것은 우리 아주대 교정에서

벚꽃과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는 데, 왜 철쭉이나 다른 꽃들은 잎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꽃이 피느냐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겸손하여 진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솔직히 고백하겠는 데, 그 교수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식물과 동물의 주기적인 현상들이 기후변화와 서식지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는 분야를 계절생물학이라고 한다. 특히 그 해에 잎이나 꽃이 처음 나오는 날짜가 중요하다. 이는 나비나 벌이 그 해 최초로 나타나는 시기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식물이 혼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식물이 꽃을 피우는 것은 씨를 만들기 위해서이고, 그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도움이 필요하다. 꽃을 잘 들여다보면 꽃받침과 꽃잎으로 둘러싸인 암술과 수술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씨는 암술에서 생기는 데,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에 도달해서 수분과정이 일어나야 한다. 이 수분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따라 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동물에 의하여 수분되는 경우를 충매화, 바람에 의하여 꽃가루가 전달되면 풍매화라고 한다. 우리가 화려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충매화일 것이다. 그러나 버드나무나 참나무와 같이 꽃이 핀 것인지 무슨 벌레가 붙어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의 꽃이면 그것은 풍매화이다.

충매화의 경우는 꽃이 피는 시기와 꽃의 색깔, 향기 등 모든 특징이 동물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진달래와 철쭉은 분류학적인 면에서 사촌간이지만,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고 철쭉은 잎이 먼저 나온다. 진달래는 산 아래 쪽에서 자라고 철쭉은 보통 1000미터 정도의 능선에서 볼 수 있다. 봄이 되면 산 밑이나 계곡에서는 따듯하여도, 산 위 능선에는 아직 춥다. 계곡에는 곤충들이 나와 돌아다니지만 능선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다.

진달래나 벚꽃과 같이 꽃이 먼저 피는 식물들은 개미들이 꽃가루를 날라다 준다. 철쭉이나 라일락꽃이 필 때가 되면 벌이나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애리조나 주 남부지역은 사막 기후로 선인장 종류가 많이 있다. 가시배선인장은 1-2월에 꽃이 피는 데, 이 꽃에 있는 꿀을 먹기 위해 벌새들은 아마존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오게 된다. 벌새들이 좋아하는 꽃들은 주로 붉은 색 계통을 띠고 있으며 벌새만큼이나 화려하다. 벌새들은 선인장에서 꿀을 얻는 대신에 꽃가루를 여기저기 날라주어 수분을 시켜주게 된다. 아마도 벌새는 자신이 선인장을 위해서 수분을 시켜주는지 모르고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시기에 애리조나에 오면 영양가가 높은 꿀이 있는 선인장 꽃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매년 날아오는 것이다. 또 한편 선인장은 꿀을 담고 있는 꽃을 피우게 되면 매년 벌새들이 날아와서 어김없이 수분을 시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동물과 식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고식물학자들이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 지구상의 관다발 식물은 1억5천만 년 전에는 500 종정도이고, 6천500만 년 전에는 2만 5천 종 정도였다고 하는데, 현재에는 꽃피는 식물만 26만 종에 이르게 되었다. 꽃피는 현화식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곤충들에 의한 수분매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현화식물과 곤충은 상호진화를 하면서 서로 변화를 야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곤충들도 신생대에 들어와서 종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다.

식물의 입장에서 꽃을 먼저 피우느냐 아니면 잎이 나온 다음에 꽃을 피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다. 어떠한 곤충이 나에게 날라 와서 꽃가루를 옮겨 주느냐에 따라 3차원적인 꽃의 구조도 필연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진달래와 같이 꽃이 먼저 피는 식물들은 수분매개를 하여 주는 개미와 같은 곤충들이 비교적 일찍 나와 주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잎이 나온 뒤에 꽃이 피는 식물들은 수분매개자 역할을 하여 주는 벌이나 나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아주대에는 벌이나 나비가 좋아할 만한 나무들이 많이 있다. 우리 대학교는 ‘수목이 아주 좋은 캠퍼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다 졌지만 교문에서 축구운동장을 끼고 도서관 남측으로 해서 율곡관 앞에까지 이어지는 뱀나무 길은 아주 근사하다.

우리 대학의 정문은 한 쪽에 치우쳐 있어서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 모양인데, 벚꽃이 한창인 4월초에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만개한 벚나무 사이로 정문에서부터 원천관을 지나 성호관에서 울곡관으로 이어지는 길을 한번 걸어보면 현재의 교문이 나름대로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잘 살펴보면 벚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살구나무도 있고, 또 서울귀룽나무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서울귀룽나무의 존재는 자연대 이천우 교수님이 알려주셨는데, 정문에서 유신고등학교 쪽으로 두 그루가 있다. 나는 이 나무를 동숭동에 있던 예전의 문리과대학에서 처음 보았었다. 귀룽나무는 화서 하나에 꽃이 여러 개가 달려서(즉, 산방화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꽃피는 시기도 벚꽃보다 일주일 정도 늦다. 벚나무와 살구나무는 꽃이 아주 흡사하여 열매를 보기 전에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살구나무 꽃은 약간 연분홍색을 띤다. '아주대표 살구'는 맛이 좋아서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무슨 일인지 벚꽃이 예년보다 열흘 정도 일찍 피었다. 보통은 중간고사 기간에 벚꽃이 활짝 피어서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매우 심란하게 하였다는 데, 올해는 중간고사 전에 꽃이 다 저버렸다. 올해는 무슨 일이 있으려나. 한 가지는 분명할 것이다. 올 해는 예년에 비해서 버찌가 아주 적게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꽃에는 향기가 있다. 라일락 같은 꽃은 밤에 더 짙은 향기를 내뿜는다. 밤에 돌아다니는 곤충을 유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꽃은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을 뽐낸다. 곤충과 새들을 유인하기 위함이다. 밝은 보라색 꽃이나 노란색 꽃은 꿀이 준비되어 있으니 벌들 보고 어서 와서 먹어달라는 신호다. 짙은 붉은 색에 긴 화관을 가지고 있는 꽃은 새들보고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빨리 와달라는 초대장이나 마찬가지이다. 고약한 냄새를 피우는 꽃은 파리 종류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러나 꽃은 말이 없다. 그렇지만 꽃이 주는 의미는 많다. 그것은 우리가 꽃을 그러한 마음으로 보기 때문이다. 마치 동물들이 제각각 알아서 좋아하는 꽃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



< 사진—홍매화 >



봄의 단상

경영학과

이홍재

2014년 또 한 번의 봄이 우리 곁을 지나고 있다. 3월엔 들마다 매화와 벚꽃, 목련이 급하게 피고 지더니 4월엔 만산에 진달래와 철쭉이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봄이란 겨울의 시련을 이겨낸 못 생명이 다시 솟아 오름 (spring) 을 “봄(見)” 이 아닐까? 봄의 기쁨과 한가로움을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은 <산중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問爾何事棲碧山(문이하사서벽산) 문노니, 그대는 왜 푸른 산에 사는가?
 笑而不答心自閑(소이불답심자한) 말없이 웃을 뿐, 마음만 한가롭네
 桃花流水杳然去(도화류수묘연거) 복사꽃 띄운 물이 아득히 흘러가니
 別有天地非人間(별유천지비인간) 별천지 따로 있어 인간세상 아니라네

정말 그러고 싶다. 모든 근심 내려놓고 꽃 피고 새 우는 이 봄날 환하게 미소 짓고 싶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건만 봄 같지 않다. 4월 어느 날 홀연히 이 땅에 봄이 사라졌다. 불의의 사고로 미처 꽃도 피워 보지 못한 새싹 같은 청춘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 놀라움과 분노, 허탈함과 무기력함, 죄책감에 짓눌려 어느 한 사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어디 한가로이 꽃구경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두보(杜甫)는 춘망(春望)이라는 시에서, 봄날의 수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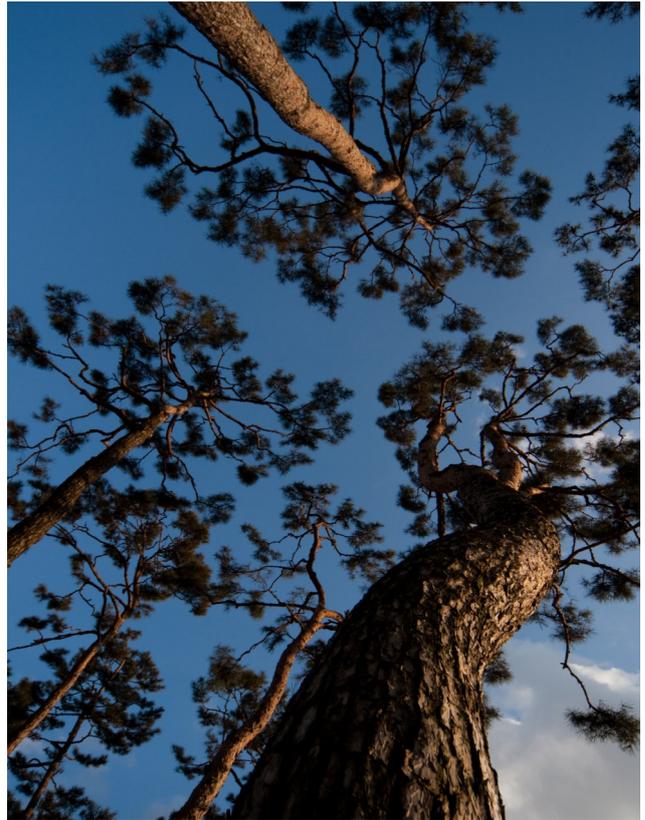
國破山河在(국파산하재) 나라는 부서져도 산하는 그대로고
 城春草木深(성춘초목심) 성에는 봄이 가득 초목이 무성한데
 感時花淺淚(감시화천루) 시절을 슬퍼하여 꽃도 눈물 흘리고
 恨別鳥驚心(한별조경심) 이별이 한스러워 나는 새도 놀라는구나.

누가 이 땅의 봄을 앗아갔을까? 세월호의 충격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권과 보수언론은 성난 민심의 분노를 돌릴 ‘화살반이’ 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하다. 몇 사람 처벌하면 해결될 문제일까? 돌아본다. 나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선장의 역할을 얼마나 잘 해 왔던가? 내 직업의 소명과 윤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지켜왔던가? 조고각하(照顧脚下), 모두가 자신의 발 밑부터 살피 볼 때이다. 잔인한 4월, 그래도 시련을 딛고 다시 돌아올 이 땅의 봄날을 간절히 기도한다.

봄

-이성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빨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줌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5월의 단상 -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종말

사회학과 노명우

가족.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사회조직이자, 또한 가장 오래된 사회조직 중 하나이다. 그래서일까? 야마다 마사히로의 책 제목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종말>은 매우 선정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가족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변화될 수 없는 박제화된 실체일 수 없다. 가족은 다른 제도처럼 세월과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자기 모습을 끊임없이 바꾸어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가족 또한 불확실한 여정을 시작했다.

가족은 절대불변의 신성화된 제도가 아니다. 울리히 벡이 후기 근대, 혹은 2차 근대의 사회의

특징으로 죽어있는데도 살아 있는 좀비 유형과 좀비화된 제도들에 대해 언급했는데, 가족을 대표적인 좀비화된 제도로 꼽은 것도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자주 인용되는 마르크스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가족과 관련된 “모든 견고한 것들은 이미 녹아내리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미 가족은 과거의 핵가족을 유일하게 견고한 형태라 고집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단지 가족이라는 제도에 대해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신화적 믿음 만이 그대로 일 뿐이다.

몇 가지 사실들은 우리가 더 이상 가족이라는

제도에 대해 오래된 관습을 유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1921년 여성의 초혼 연령이 19.5세였고 남자는 18.2세였다. 2010년에 오면 남자는 평균 31.8세 여자는 28.9세에야 결혼 한다. 만혼화 경향과 나란히 이혼의 보편화는 가족 불확실성을 높여주는 또 다른 요인이다. 1990년의 총 혼인건수에 비해 2010년의 총혼인건수는 오히려 줄었지만, 총이혼건수는 1990년의 45,694에 불과했지만 2009년의 총이혼건수는 72,830으로 늘어났다. 결혼은 더 이상 안정적인 '같이 살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결혼은 이혼과 재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매우 유동적인 틀로 바뀌었다.

1980년 한국 사람의 절반 정도는 5인 이상으로 구성 되어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었다. 2인 가구(대부분은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는 5인 이상의 가구의 1/5 정도에 불과했다. 1인 가구는 4.8%에 불과해 사회적인 의미가 없을 정도의 소수였다. 그 이후 나타나는 변화의 방향은 명확하고, 변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5인 이상의 다인 가구는

2012년 전체 가구 중 7.2%에 불과한 규모로 축소되었다. 반면 1인 가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1980년 4.8%에 불과했던 1인 가구는 급격히 늘어나 2012년에 무려 25.3%로 늘어났다.

2035년까지의 장기추계를 살펴보면 더욱 극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현재 2013년 현재 20대인 사람이 40대가 되는 2035년이 되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은 1인 가구가 자녀 없는 부부가구나,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와 같은 핵가족 조차 제치고 가장 많은 가족의 형태가 될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2010-2035>에 따르면 2010년 부부+자녀가구가 37.%, 1인가구 23.9%, 부부가구 15.4%이지만, 2035년에는 1인 가구가 34.3%, 부부가구가 22.7%, 부부+자녀가구(20.3%)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종말은 판타지에서 현실로 변해가고 있다.

고수들의 건강칼럼

전립선 비대증

비뇨기과 최중보

전립선은 남성 방광 바로 밑의 요도를 감싸고 있는 기관으로 그 역할은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 내는 것 이외에 뚜렷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 점차 크기가 증가하여 요도를 압박함으로써 소변을 보기 힘들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

기의 전립선 크기는 약 15g 정도이지만 30대에 이르러 점차 비대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관련이 있어 거세를 한 내시에서는 전립선비대증이 생기지 못했을 것이다.

전립선비대증은 임상적인 진단으로 남성의 하부 요로증상을 유발하는 흔한 질병이다. 하부요로증상이란 소변을 볼때 힘들게 하는 배뇨증상, 소변을 참을때 잘 참지 못하게 하는 저장증상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난 후에 잔뇨감이 남는 것과 같은 배뇨후증상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전립선비대증은 이 3가지 증상을 모두 유발할 수 있다. 처음에는 소변이 나가는 요도의 저항이 증가하여 소변을 보기 힘들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변을 보기 위하여 방광이 강하게 수축을 해야하므로 방광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립선이 크면 모두 치료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단언을 할 수 있다. 임상에서는 전립선이 매우 크지만 배뇨를 원활하게 하는 분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단순히 소변을 본다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해부학적 구조부터 신경 지배, 방광 근육의 상태 등 여러 장기에 의한 복잡한 과정이 제대로 협조적으로 작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환자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를 한다고 하여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들도 경험할 수 있다.

40세 이상이 되어 증상이 있으면 일단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 기본적인 검사로는 소변검사, 혈청 PSA(전립선특이항원) 검사, 요속검사(소변줄기를 컴퓨터로 분석해보는 간단한 검사), 전립선 초음파 검사이다. 소변검사는 염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방광염과 같은 요로계 염증으로도 하부요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혈청 PSA검사는 전립선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자 약 30년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검사이다. 이 검사 덕분에 조기에 진단된 전립선암 수술로 완치의 확률이 많이 높아졌으므로 60세 이상의 남자는 매년 받아보는 것이 권장된다. 정상치는 4.0 ng/dl 이 하지만 비교적 젊은 60세 이전의 정상치는 2.5 ng/dl 이하로 강화시켜 임상에 적용하고 있다. 요속 검사는 말 그대로 소변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이가 들에 따라 속도가 감소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검사하는 것이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probe를 항문으로 삽입하여 전립선을 검사하는 것으로 전립선의 크기, 이상 유무 등을 판별하는 영상 검사이다.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가 증상의 유무이다. 조직학적으로 진단되는 전립선비대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유병율이 증가하여 60대의 남성중 50%, 80세 남성의 95%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에 의한 폐색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50% 정도만이며, 그 중에서도 하부요로증상을 유발하는 것은 30-50%정도이므로 모든 환자가 증상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미미한 정도라면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며, 전립선비대로 인한 합병증이 없거나 혈청 PSA가 정상인 경우 그리고 비교적 전립선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치료 없이 추적 관찰만 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전립선비대증이 진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현재 여러 임상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



아주대학교 교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전동 산5번지 아주대학교 울곡관 2b3호

전화: 031)219-2240

팩스: 031)219-1b08

전자 메일: juok@ajou.ac.kr

는데 주로 증상의 악화, 급성 요폐의 발생 그리고 약물치료에서 수술로 치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등을 전립선비대증의 질환 자체가 진행되어 생기는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이다. 오랜 기간 동안 방광출구폐색이 방광의 기능이 변화하여 소변을 잘 저장하지 못하는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외에도 반복되거나 지속적인 요로감염이 발생하거나 방광 결석과 동반되어 있는 경우, 급성 혹은 만성 요폐가 있거나 수신증과 같은 신장의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역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일차 치료는 약물치료이다. 두 가지 약물이 주로 사용되는데 첫째는 전립선내 요도를 확장시켜주는 알파수용체 차단제로 빠른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두번째는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5알파환원 효소 억제제로 6개월간 사용하면 약 30%의 크기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그만큼 증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약물은 남성호르몬의 작용을 중간에 차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성기능 감소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의 효과와 안전성이 증명되어 있어

현재 전립선 비대증의 주 치료로 사용되고 있다.

수술적인 치료는 약물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합병증이 발생되었을 때 시행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이다. 이 방법은 내시경으로 요도를 통하여 전립선을 보면서 비대되어 있는 조직을 대패로 깎듯이 절제해내는 것으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나 출혈이 적지 않은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홀mium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방법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거의 모두 제거할 수 있어 완ちに 이를 수 있으며 출혈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아직 시행된지 10여년 밖에 안되었으며 장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은 남자라면 거의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질환이나 증상이 없으면 꼭 치료할 필요는 없다.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통하여 확진을 한 이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편집위원회 : 노명우(편집책임), 강충권, 구형건, 김상배, 김혜선, 이재호